

기호와 시간

—소쉬르의 ‘순간’에 대한 세 가지 가설

최용호

1. 들어가며

한 가지 역설을 지적함으로써 ‘기호와 시간’이란 다소 무거운 주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20세기 사상사를 빛낸 『일반 언어학 강의』(이하 『강의』)의 저자 페르디낭 드 소쉬르는 구조주의의 최고 수혜자이자 동시에 최대 희생양이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자. 지식사적으로 볼 때 『강의』의 성공이 구조주의의 성공을 이끌었다기보다 구조주의의 성공이 『강의』의 성공을 이끌었다.¹⁾ 바로 이런 점에서 소쉬르는 구조주의의 최고 수혜자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구조주의의 쇠퇴와 더불어 소쉬르는 구조주의에 가해진 온갖 비난을—때로는 홀로—감수해야 했다. 이런 점에서 소쉬르는 구조주의의 최대 희생양이었다. 이런 비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비난은 아마 소쉬르의 언어 사상이 한편으로 비(非)역사적이

1) W. Keith Percival은 「소쉬르 패러다임: 사실 혹은 허구? The Saussurean paradigm: fact or fantasy?」에서 우리가 구조주의의 선구자들로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쉬르의 『강의』를 접하기 이전에 이미 자신들의 독창적인 사상 체계를 갖추고 있었음을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입증하였다. 결국 『강의』의 성공은 구조주의 성공의 원인이기보다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고(통시 언어학에 대한 공시 언어학의 우위), 다른 한편으로 반(反)화행론적(파롤의 언어학에 대한 랑그의 언어학의 우위)이라는 비난일 것이다.²⁾ 이 두 비난은 한마디로 무시간적인 혹은 탈시간적인 그의 언어관에 대한 비난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비난에 대해 오늘날 문헌 고증학적으로 언급할 것이 많이 있지만, 이 글의 주된 목적이 소쉬르를 변호하거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나마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만족하려 한다. 고델(1957) 이후 사람들은 『강의』의 소쉬르와 『수고(手稿)』의 소쉬르가 동일한 소쉬르가 아님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³⁾ 결과적으로 구조주의의 원류로서 소쉬르에게 가해진 이러한 비난들은 『강의』에 대한 비난일 수는 있어도 소쉬르 자신에 대한 비난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오늘날 구조주의만이 소쉬르를 읽는 유일한 방식이 아니다.⁴⁾ 물론 나는 여기에서, 독일의 소쉬르 학자 예거가 보여준 것과 같은, 소쉬르 자신의 ‘참된’ 사고를 밝히려는, 어쩌면 무모한 시도에 발을 들여놓지는 않을 것이다.⁵⁾ 시간의 문제는 그 동안 구조주의가 소홀히 해온 문제이다. 나는 앞으로 이 문제가 소쉬르 언어 사상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문제임을 주장할 것이다.

2) 최용호, 2000, pp. 41~64.

3) 고델 이후 전개된 소쉬르 연구의 문헌학적 역사는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최용호, 2000, pp. 24~31 참조).

4) 김성도는 『로고스에서 뫼토스까지』(1999)에서 사람들이 그 동안 소쉬르에 대해 갖고 있었던 구조주의적인 여러 편견들을 일소하는 데 상당히 기여하였다. 그의 이런 노력을 로고스에서 뫼토스로의 단순한 이행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자는 오히려 로고스와 뫼토스 사이에서 방황하는 소쉬르의 지성사를 소묘하고 있기 때문이다.

5) 소쉬르 사상에 대한 참/거짓 논쟁은 이미 고델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이 논쟁은 독일의 소쉬르 학자 예거 L. Jäger(1976, 1983)에게서 첨예한 형태로 등장한다. 그는 구조주의자 소쉬르를 ‘거짓’으로, 독일의 관념철학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소쉬르를 ‘참’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그의 문헌학적 분석이 아무리 치밀하다 하더라도, 그의 이런 결론을 인듯 수용하기란 곤란하다. 왜냐하면 소쉬르의 지적 전통을 관념론이 아닌 합리주의에서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관련해, Choi(1999)와 최용호(2000) 참조.

2. 문제 제기

『강의』 1부 2장 「기호의 가변성과 불가변성」에 등장하는 다음의 문구는 소쉬르의 구조주의적 이미지——무시간적인——와는 가장 동떨어진 소쉬르의 언어관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고텔 이후 많은 소쉬르 문헌학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문구에 대해 논평은커녕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놀랍기만 하다.

기호와 기표를 매순간마다 변화시키는 요인들에 맞서, 언어는 스스로를 방어하기에 근본적으로 무력하다. (CLG/D: 데 마우로 T. De Mauro의 『『강의』 주석본』, p. 110. 최승언 옮김, p. 94)(강조는 필자)

위의 문구를 읽으면서 받은 신선한 충격은 단지 기호와 기표의 관계가 변한다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이 관계가, 『강의』의 표현에 따르자면, “매순간마다” 변한다는 사실이다. 이 극단적인 표현은, 종종 그러하듯, 『강의』의 편집인들——발리와 세수에——이 자의적으로 삽입한 것이 아니다.⁶⁾ 일반 언어학에 대한 소쉬르의 세번째 강의(1910~1911)를 들었던 학생들은 편집인들의 작업이 스승의 강의에 충실했음을 잘 증명해준다.⁷⁾ 즉 소쉬르는 분명히 자신의 입으로 “매순간마다”를 언급했던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구조주의자 소쉬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또 다른 소쉬르의 모습

6) 이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예는 아마 『강의』의 마지막 문구일 것이다. “언어학의 유일한 대상은 오직 그 자체로, 그 자체를 위해 고려된 랑그이다”란 문구는 소쉬르의 것이 아니다. 구조주의 사상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 문구가 소쉬르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문헌학적인 분석을 거치지 않은 채 소쉬르 사상에 대해 논한다는 것은 어쩌면 무의미하다.

7) 예를 들어, Dégallier de d'instant en instant(CLG/E: 앵글러 Engler의 『『강의』 비판본』, p. 167, D221)이란 표현을 그대로 적고 있으며, Sechehay는 tout le temps(S2.22)이란 표현을, Constantin은 de moment en moment(III C 322)이란 이와 거의 유사한 표현을 남기고 있다.

을—그것도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발견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질문들을 더 이상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쉬르의 공시태는 “매순간마다”라는 미시적 통시태로 낱낱이 쪼개져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쪼개진 틈새에서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혹시 그 틈새 사이에서 의미의 끊임없는 분출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만약 그러하다면, 기의의 끊임없는 유출 glissement을 언급한 프랑스 정신 분석학자 자크 라캉은 그 어떤 구조주의 언어학자들보다도 소쉬르를 더 잘 이해한 것이 된다. 물론 소쉬르만이 기호의 이런 불안정한 속성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 소쉬르와 거의 동시대에 기호학을 구상한 페르는 ‘기호학’을 “가능한 세미오시스의 본성과 근원적인 다양성에 대한 학설”⁸⁾로 정의한다. ‘세미오시스의 근원적인 다양성’이란 세미오시스의 ‘무한한’ 과정을 가리킨다. 기호로서 해석체는 또 다른 해석체를 요구하는데, 이런 과정은 끊임없이—매순간마다—지속된다. 여기서 소쉬르의 ‘순간’과 페르의 ‘무한’이 조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탈리아의 기호학자 에코는 『기호학 이론』에서 ‘기호’를 “요소들의 일시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코드화 규칙의 잠정적인 결과”⁹⁾로 정의한다. 코드 중의 코드를 발견하고자 했던 그는 그 누구보다도 이 코드가 ‘잠정적’임을 잘 알고 있었다. 아마도 『장미의 이름』이 아리스토텔레스로 거슬러 올라가는 모던의 근원으로서의 책, 즉 코드를 찾으려는 혹은 구하려는 시도였다면, 『푸코의 추』에서 그는 책을 조롱하면서—글자 수수께끼의 놀이의 형태로—이런 모던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려 하였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책, 곧 ‘가짜’로서의¹⁰⁾ 기호학적 존재가 덧없는 존재임을 말하려 한 것이 아닐까? 이처럼 기호학자들에게 기호학적 존재는 근본적으로 불안정한—덧없는—존재이며, 이러한 불안정성의 이면에 다름아닌 시간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8) Deledalle, G., 1978, p. 135.

9) U. Eco, 1979, p. 49.

10) 에코, 이윤기 역, 1990, p. 691.

나는 여기에서 이 세 기호학자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걸어간 긴 학문적인 여정을 추적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극단적인 주장을 편 소쉬르에 한해 논의하려 한다. 솔직히 이 문제—기호 관계가 매순간마다 변한다는—에 대해 아직 명확한 답변을 찾지 못했다. 다만 몇 가지 가설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려 한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가설은 세 가지 정도이다: 1) 구술성의 가설, 2) 사회성의 가설, 3) 담론성의 가설.

3. 소쉬르의 '순간'에 대한 세 가지 가설

I. 구술성의 가설

인간의 말은 음성을 수단으로 하고 있고, 음성은 시간 속에서 전개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덧없음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다. 달리 말해 매번 발음할 때마다, 언어 기호가 그 매체로 삼고 있는 음성은 매번 다르게 실현된다. 이런 의미에서, 즉 '매번 발음할 때마다'란 의미에서, 소쉬르의 '매순간마다'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이 가설의 근본적인 생각을 소쉬르라기보다 월터 옹 Walter J. Ong(1982)의 『구술 문화와 문자 문화 *Orality and Literacy*』에서 착안하였다. 여기서 잠깐 그를 인용해보자.

모든 감각은 시간 속에서 생기는데, 소리는, 인간의 감각으로서 등록되어 있는 그 밖의 영역과는 달리, 시간과 특수한 관계를 맺는다. 소리는 그것이 막 사라져갈 때만 존재한다. 소리는 단지 소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덧없는 것이다. (이기우·임명진 옮김, 1995, p. 53)

“본질적으로 덧없는” 소리를 질료로 삼고 있는 언어 기호는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속성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비록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생각을 소쉬르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공

시적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강의』 2부 3장—소쉬르가 들고 있는 예를 살펴보자. 일반 언어학에 대한 2차 강의에서 소쉬르는 ‘여러분! Messieurs!’ 이란 예를 가지고 정체성의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음을 설명하려 했다. 다음을 보자.

모순처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상이한 음성적 질료! 그러나 두 번 발음된 여러분은 매한가지다. 나는 질료를 갱신해야 했다. 따라서 그것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어떤 정체성은 아니다. (CLG/E, p. 246, II R 39)(강조는 필자)

한 연사가 ‘여러분’을 두 번 발음했다고 하자. 이 두 ‘여러분’은 동일한 ‘여러분’이다. 바꿔 말해 그는 ‘여러분’이란 ‘음성적 질료’를 두 번 반복했을 뿐이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두 번 반복된 동일한 ‘여러분’은, 소쉬르에 따르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어떤 정체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왜냐하면 서로 다르게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세번째 강의에서 소쉬르는, 이번엔 ‘전쟁’이란 예를 가지고 좀더 명확하게 설명한다.

이야기꾼은 전쟁에 관해 말하면서 전쟁이란 말을 15번에서 20번 정도 반복한다. 우리는 이를 동일하다고 단정한다. 그런데 이 단어가 매번 발음될 때마다 상이한 행위가 있는 것이다. (CLG/E, p. 246, III C 294)(강조는 필자)

“매번 발음될 때마다 상이한 행위가 있다”는 말은 발음상 매번 다르게 실현된다는 말이다. 월터 옹과 마찬가지로 소쉬르는 언어 기호가 그 매체로 삼고 있는 소리의 ‘덧없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언어 기호의 정체성이 곧바로 문제에 부딪히는 것은 아니다. 소쉬르가 위에서 든 두 예는 공시적 정체성을 반박하기 위해 든 예가 아니라, 공시적 정체성이 물질성—질료적 특성—에 있지 않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든 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질료——소리——가 ‘매순간마다’ 변한다면, 혹시 이 과정에서 어느 순간인가, 기표와 기의의 관계가 아울러 변하게 되지 않을까? 우리는 소쉬르가 이 문제에 관해 고심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그가 우리의 물음에 긍정적으로 답하려 한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을 읽어보자.

이 체계는 전달되면서 그 질료에 있어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로 인해 기호와 사고의 관계는 변하게 된다. (CLG/E, p. 54, II R 21).

질료상의 변화는 결국 기호 관계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위의 문구에 따르면,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전달 과정이 언어 기호의 사회성을 가리킴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사회성의 가설을 살펴보자.

II. 사회성의 가설

언어 기호는 순환하는 한에서 존재하며, 순환하는 가운데 필연적으로 변화를 겪게 된다. 사회성의 가설을 요약하면 이와 같다. 나는 이 가설을, 소쉬르에 대한 철저한 문헌 분석을 통해 ‘기호학적 전달’이란 소쉬르 기호학의 새로운 차원을 발견한 요하네스 페르 Johannes Fehr의 『페르디낭 드 소쉬르: 언어학과 기호학 *Ferdinand de Saussure: Linguistik und Semiologie*』(1977)에서 빌려왔다. 우리는 그의 생각의 요체를 다음의 짤막한 문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언어 기호의 자의성의 원리가 명확해져야 하는지가 분명해진다. 언어의 지속적인 변화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언어란 순환하는 한에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귀결되

는 역동성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이를 기호의 구성적 차원으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원리의 개념이 탐구되어야 한다.

“언어란 순환하는 한에서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귀결되는 역동성”은, 페르의 주장에 따르면, “언어 기호의 구성적 차원”을 형성한다. 언어 기호는 본질적으로 역동적이다. 소쉬르가 주장한 언어의 사회성이 종종 반역사적인 특성으로 오해되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그의 사회성 *socialité*을 단지 관습성 *conventionalité*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이다.¹¹⁾ 페르의 가장 큰 공헌 가운데 하나는 소쉬르의 사회성이 갖는 또 다른 차원, 즉 사회적 순환 *circulation sociale*이란 차원을 발견한 것이다. 바로 이 차원으로 인해 ‘언어의 지속적인 변화’가 가능한 것이다. 관습성의 개념이 정적이라면 사회적 순환이란 개념은 동적이다. 언어는 필연적으로 변한다. 왜냐하면 ‘언어는 순환하는 한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는 페르의 이런 주장이 근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나치게 일반적(철학적)이어서 구체적인 언어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데에는 충분치 못하다. 변화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언어가 순환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페르가 보여준 성실한 문헌학적 분석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 문헌학자로서 그가 보여준 가장 큰 장점이자 또한 단점은 소쉬르가 말하고자 하는 데까지만 말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신중함을 잃지 않으려는 그의 태도이다. 나는 문헌학자로서 소쉬르를 읽지 않을 것이다. 소쉬르에서 멈추기보다 소쉬르로부터 출발하기 위해 그를 다시 읽으려는 것이 나의 기본적인 의도이다. 그럼 순환의 과정 속에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소쉬르는 『강의』 4부 「지리언어학」에서 언어의 지리적인 다양성을 설명

11) Choi, “Saussure et Lacan: autour du problème du temps,” 2000 참조.

하기 위해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한다. 하나는 '지방 근성 esprit de clocher' 이고 다른 하나는 '교역 성향 force d'intercourse' 이다. 지방 근성은 한곳에 머무르려는 경향을 가리키고 교역 성향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을 가리킨다. 지방 근성이 강할 경우 언어는 지리적인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왜냐하면 한 지역에서 생성된 단어가 다른 지역으로 순환되지 않을 경우 다른 지역에서 이를 이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지리적인 차이가 발생한다. 반면 교역 성향이 강할 경우 언어는 통일을 이룰 수 있게 된다. 한 지역에서 생성된 단어가 다른 지역으로 순환됨으로써 그 지역에서도 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두 힘은 사실은 동일한 기원을 가지고 있다. 즉 언어는 순환된다는 사실이다. 지방 근성은 단지 끊임없는 순환 과정에 있는 언어를 잠시 멈추게 할 수 있을 뿐이다. 순환하면서 언어는 통일을 유지하게 된다. 이렇게 통일을 유지한 언어는 순환하면서 다시 변화를 겪게 된다. 순환의 중심 기능이 기호 체계의 체계성을 형성하는 것이라면, 또 다른 기능은 이런 체계성을 다시 움직임 속에 내던지는 것이다. 움직임 속에 있는 체계는 결국 변화를 겪게 된다. 소쉬르에 따르면, 이런 '움직임'의 '원리'는 '절대적'이다.¹²⁾ 순환이 시간의 경과를 요구한다면, 시간의 경과는 결국에 모든 것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를 인용해보자.

우리는 당분간 이런 단순한 사실을 참조할 수 있다. 즉 시간에 종속된 온갖 것들은 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 (CLG/E, p. 172, N 23.6)

한 지역에서 생성된 새로운 낱말은 순환되면서 언어 체계 속에 통합 intégration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시 변화 transformation를 겪게 된다고 볼 수 있다.

12) CLG/E, pp. 318~19, N 23.1

박상우의 『내 마음의 옥탑방』은 이런 순환 과정을 잘 보여준다. 주인공 ‘나’는 양옥 건물의 “옥상에 위치한 공중에 떠 있는 방”(p. 26)의 존재에 대해 의아해하며, 그 이름을, 그곳에 살고 있는 여주인공인 주희에게 묻는다. “옥탑방”(p. 26)이란 그녀의 대답에 ‘나’는 더욱 놀라게 된다. 왜냐하면 그 단어는 “지상에 태어난 이후 한번도 들어본 적 없는 해괴한 말”(p. 26)이었기 때문이다. 차라리 옥상방이면 몰라도 그건 말도 되지 않을 조어라고 ‘나’는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반문한다.

단 한 글자가 바뀐 것이지만 ‘상(上)’이 ‘탑(塔)’으로 바뀔 때 일어나는 느낌의 차이는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옥상방, 하고 발음하면 옥상에 위치한 방으로 그것의 의미가 절로 설명된다는 걸 알 수 있으리라. 하지만 옥탑방, 하고 발음하면 완전히 다른 느낌, 일테면 요령부득의 위압감이나 이방감 같은 게 먼저 느껴진다. 게다가 발음까지 단호하고 완강한 감이 있어서 무엇인가, 그것의 이면에 언뜻 떠올리기 어려운 폐쇄감까지 깃들여 있는 것 같다. 인간들이 복적대는 지상으로부터 아득하게 유배된 공간…… (p. 27)

위의 문구는 새로운 낱말에 대한 주인공 ‘나’의 신선한 느낌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나’는 십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 “옥탑방이란 조어가 향간에서 흔히 통용되는 말”(p. 27)이 되어버린 것을 보고 더욱 놀라게 된다. ‘통용’되면서, 다시 말해 사회 속에 끊임없이 순환되면서, “옥탑방이라는 말은 신비감을 잃고 생활 정보지의 일에만 원짜리 광고란에까지 흔하게 등장하는 말이 되어버렸다”(p. 28). 탑이란 ‘은유’가 갖는 /요령 부득의 위압감//이방감//단호하고 완강한 감//폐쇄감//유배 공간/ 등의 이미지는 사라지고 이제는 ‘관습적인’ 용어가 된 것이다. 사회 속에 순환되면서 기호는 이처럼 통합과 변화의 과정을 동시에 겪게 된다. 이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순환 모델: 기호 S의 순환

생성 → 통합 → 변화
 t0 t1 t2

이 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해보자.

새롭게 만들어진 기호는 사회적인 순환을 거쳐 언어의 체계 속으로 통합된다. 옥타방은 더 이상 '해괴한 말'이 아니라 '항간에 흔히 통용되는 말'이 된 것이다. 통합된 상태를 우리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통합 모델: (S)t0 → (S, S', S''.....)t1

변화의 경우 우리는 몇 가지 양태를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기호의 의미역이 확대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축소된 경우이다. 예를 들어 '늑대'와 '개'라는 두 개의 낱말이 있다고 하자. 어느 날 '늑대'란 말이 사라졌다. 소쉬르는 이 경우 '개'란 낱말이 '늑대'를 대신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경우 개는 /길든/이란 의소뿐만 아니라 늑대가 가지고 있었던 /야생/이란 의소도 아울러 가지게 된다. 이 경우가 바로 기호의 의미역이 확대된 경우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IMF' 관련 다양한 복합 표현들 역시 기호의 의미역이 확대된 경우이다. 'IMF'는 원래 국제통화기금을 의미하는 전문적인 용어였다. 그러나 외환 위기 뒤에 'IMF'는 자신의 의미역—IMF 한파(/경제 위기/), IMF 식단(/단출한/), IMF 가격(/싼/) 등—을 끊임없이 확대해갔다(/전문어/→/일상어/). 반면 '공갈'이란 낱말은 의미역이 축소된 경우이다. 거짓말·협박 등의 의미로 세간에 자주 통용되던 용어가 법정 용어—공갈협박죄 등의 형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로 제한된 것을 볼 수 있다(/일상어/→/전문어/). 또 다른 경우는 전혀 다른 의미로 전이된 경우이다. 예를 들어 /사랑하다/란 뜻을 가진 '생각하다'란 말이 오늘날 그 처음 의미를 잃어버린 경우이다. 변화의 이러한

세 가지 양태를 모델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변화 모델: 확대: $(S)t_1 \rightarrow (S(S'), S'' \dots) t_2$

축소: $(S)t_1 \rightarrow (S'(S), S'' \dots) t_2$

전이: $(S)t_1 \rightarrow (S', S'' \dots) t_2$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기호의 의미역이 확대·축소 혹은 전이된다는 것은 관찰을 바탕으로 한 하나의 경험적인 사실이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었는가? 이 문제에 적절히 답하기 위해서는 기호의 이러한 삶—통합·확대·축소·전이 등—을 언어 공동체의 사회적인 삶과 결부시켜야 할 것이다. 기호의 삶이 변화무쌍한 이유는 다름아니라 기호의 삶이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공간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이다. 기호는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자신의 삶을 조율해야 한다. 기호의 본질적인 기능이 바로 여기에 있다. 'IMF' 시대에 사람들은 당면한 새로운 위기를 적합한 방식으로 나타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은 'IMF' 시대를 겪어야 했던 한국의 사회적인 현실로부터 생겨난 필요성이다. 문제는 이러한 새로운 경험을 표현해줄 수 있는 새로운 기호를 어떻게 만드느냐이다. 'IMF' 와 관련한 다양한 복합 표현들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기호가 변하는 이유는, 다시 말해 기호의 삶이 역동적인 이유는, 다름아니라 기호학적 삶이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공간이 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언어 기호의 역사성은 언어 기호의 사회성에서 비롯된다. 주지하 다시피 소쉬르는 '기호학'을 "사회적인 삶 속에서 기호들의 삶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했다. 나는 이 정의를 자구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기호의 삶과 사회적 삶과의 상호 작용을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하는 것이 소쉬르가 구상한 기호학적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지금까지 기호의 사회적인 순환이란 주제로 기호의 변화를 설명하

려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변화가 거시적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다. 반면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 즉 소쉬르의 ‘순간’이 제기하는 문제는 미시적 차원에 속한 문제이다. 물론 기호학적 순환은 ‘매순간마다’ 이루어진다. 언어가 순환되지 않은 순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전설에 대한 연구에서 소쉬르는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상징의 정체성은, 상징으로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다시 말해 그 가치를 매순간 결정하는 사회적 무리 속에 던져지는 그 순간부터 결코 고정될 수 없다. (LG/MM: 마리네티와 멜리의 『전설』, p. 30)

따라서 사회성의 가설은 타당하다. 그런데 ‘매순간마다’ 순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매순간마다’ 언술 행위를 해야 한다.

III. 담론성의 가설

“기의와 기표의 관계가 매순간마다 변한다”라는 명제에서 ‘순간 instant’이란, 벤베니스트적 의미에서, ‘담화의 순간 instant du discours’¹³⁾을 가리키며, 담화의 순간은, 역시 벤베니스트적 의미에서, ‘담화의 주체 sujet du discours’ —— ‘나 ego라고 말한 나 ego’¹⁴⁾ ——를 전제하며, 이 주체는 ‘담론적 지향성 intentionnalité discursive’을 지닌 화자 sujet parlant에 다름아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우리는 변화의 동인을 ‘화자의 담론적 지향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소쉬르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을 때 바로 이러한 생각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랑그에서 통시적인 모든 것은 오직 파를을 통해서만 그러하다. (CLG/E. p. 223, S 2.32)

13) E. Benveniste, 1974. pp. 72~73.

14) E. Benveniste, 1966. p. 260.

그러나 이 문구만으로 소쉬르의 개념적 기제 속에서 ‘화자의 담론적 지향성’을 발견하기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보다 더 자세한 논의를 위해 우리는 소쉬르가 『강의』 서문 3장 2절에서 “파롤의 순환”이라고 부른 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소쉬르는 이 과정에 대한 분석에서, 한편으로 기의가 기표와 결합하는 능동적인 과정과, 다른 한편으로 기표가 기의와 결합하는 수동적인 과정을 구분한다. 전자는 파롤의 영역에, 후자는 랑그의 영역에 각각 해당한다. 소쉬르는 이 두 서로 다른 영역에서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 ‘의미’를 모두 ‘기의’란 동일한 용어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의미론에서 이 둘은 동일한 의미를 가리키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설 J. Searle은 파롤의 영역에 해당하는 기의를 ‘화자의 발화적 의미’로, 랑그의 영역에 해당하는 기의를 ‘단어나 문장의 의미’로 구분한다.¹⁵⁾ 프리에토가 확립한 커뮤니케이션의 기호학의 계열에서 카프트 아르토(1994)는 이와 유사한 구분을 제안하였다. 즉 그녀는 ‘의미’와 ‘언어학적 기의’를 구분한다. ‘의미’는 구체적인 의사 소통의 상황 속에서 화자가 의도하는 바를 가리키며, ‘언어학적 기의’는 화자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랑그에 저장된 의미를 가리킨다. 같은 맥락에서 나는 파롤의 영역에 속한 기의를 ‘지향적 기의 *signifié intentionnel*’로, 랑그의 영역에 속한 기의를 ‘관습적 기의 *signifié conventionnel*’로 부르고자 한다. 전자가, 화자가 의도하는 바의 의미라면, 후자는 관습적으로 해석 가능한 의미이다. 카프트 아르토는 언어학적 기의를 화자의 처분 가능성으로 정의하였지만 나는 그녀와는 다소 다르게 청자의 관습적인 해석 가능성으로 정의하려 한다. 물론 화자는 자신이 의도하고자 하는 의미를 전달할 때 관습적인 해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커뮤니케이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컴퓨터의 경이로운 발달로 ‘말하는 기계’의 가능성이 점

15) J. Searle, 1979, p. 77.

점 현실화되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은 분명히 밝혀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현대 테크놀러지를 십분 활용하여 관습적인 의미에 관한 완벽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컴퓨터에 지향적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컴퓨터는 지향성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¹⁶⁾ 컴퓨터는 인간에게 해줄 말은 있어도 사실 할말은 없다. 이런 담론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컴퓨터의 의미론은 결국 불안정한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시 논의를 이어보자.

‘화자의 담론적 지향성’이란 바로 파롤의 영역에 속한 기의, 즉 ‘지향적 기의’를 가리킨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담론적 지향성’이며 ‘지향적 기의’이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하고자 하는— 욕구는 ‘담화의 필요 *besoin du discours*’에 의해 생겨난다. 문제는 이러한 필요가 어디로부터 발생하는가이다. 우리는 앞서 ‘기호의 삶’과 ‘사회적 삶’과의 상관 관계를 강조하였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를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담화의 필요’는 바로 사회적인 요구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IMF 시대’란 표현에서 ‘IMF’는 국제통화기금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외환 위기’를 가리키는 고유 명사이다. ‘외환 위기’란 보통 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굳이 고유 명사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당면한 경제적 위기를 정확하게 지칭할 수 있는 용어가 필요했기 때문이 아닐까? 어쩌면 우리는 위기의 분명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기 때문이다.

소쉬르는 유추에 대한 분석에서 ‘담화의 필요’란 용어를 사용하였다.¹⁷⁾ 그의 유추 이론은 문제의 ‘화자의 담론적 지향성’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16) 이 문제와 관련해, J. Searle, *La redécouverte de l'esprit* 참조. 아울러 필자의 줄고인 「언어란 기계인가?」(『불어불문학지』 42, 2000) 참조.

17) CLG/E, p. 384, I R 1.22.

예를 제공해준다. 소쉬르는 유추 현상을 일반 언어학에 대한 1차 강의에서 는 순수히 통시적인 현상으로 기술한다. 음성 변화가 아닌 모든 것은 유추 변화이다.¹⁸⁾ 반면 2차 강의에서 그는 유추를 공시적 현상, 즉 체계적 현상 으로 관찰한다. 그에 따르면, 유추란 “랑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끊임없는 창조”¹⁹⁾이다. ‘일상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는 언어적인 ‘창조’가 곧 유추이다. 어쩌면 ‘매순간마다 변하는 기호 관계’의 비밀을 밝힐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유추 현상에) 있는지도 모른다. 소쉬르는 유추를 4차 방정식으로 설명한다. 즉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같다는 것이다. 다음의 예가 바로 그러한 예이다.

oratore[m] : orator = honorem : x

x = honor (CLG/E, p. 366, I R 2.7)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IMF 한파’란 표현이 처음으로 조선일보에 등장한 것은 1997년 12월 4일이다. 그날은 그해 가장 추운 날이었고 신문 머릿기사에 한파주의보란 표현이 등장한다. 바로 그날 신문 사설에 ‘IMF 한파’란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것이다. 이 표현은 물론 은유적인 표현이다. 경제 위기의 강도를 한파란 이미지를 통해 표현한 것이다. 그뒤 이 표현은 그해 가장 많이 인구에 회자되었던 표현이 되었다. 인지 의미론의 입장에서 보면 은유와 인지의 문제는 이처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인지 의미론의 문제는 개념적인 영역과 언어학적인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 있다. 한파에 대한 체험과 경제 위기에 대한 체험이 인지적인 관계로 묶여 있다고 해서 ‘IMF 한파’란 표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IMF 한파’란 표현을 사용하기 전에 이미 ‘입시 한파’라든가 ‘사정 한파’와 같은 표현들을 언어학적인 보고 속에 보관

18) CLG/E, p. 365 I R 2.5.

19) CLG/E, p. 369, II R 148.

하고 있었으며, 바로 이런 표현들이 모델이 되었던 것이다. 유추 모델로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입시 : 입시 한파 = IMF : x

x = IMF 한파

여기서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담화의 필요'에 의해 새로운 용어나 표현을 만들 때 인지적인 요소와 언어학적인 요소가 동시에 작용한다는 점이다. 화자는 이런 점들을 활용하여 자신이 의도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새로운 기호 관계가 '일상적으로' '끊임없이' '창조' 되는 것이다.

4. 나오며

우리는 지금까지 소쉬르의 수수께끼와 같은 주장, 즉 기호 관계가 매순간마다 변한다는 그의 주장을 세 가지 가설, 즉 구술성의 가설과 사회성의 가설, 그리고 담론성의 가설을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구술성의 가설에서 나는 인간의 언어가 매체로 하고 있는 소리의 덧없음에 착안하여 소쉬르의 순간을 설명하려 했다. 그런데 기호 관계는 소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가설은 불충분한 것이었다. 이어 나는 사회성의 가설을 살펴보았다. 기호는 사회 속에 순환되면서 필연적으로 변화를 겪게 된다. 나는 변화의 다양한 양태—통합·확대·축소·전이 등—to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 가설의 문제점은 그 거시적인 차원에 있었다. 왜냐하면 소쉬르의 수수께끼는 거시적 시간이 아닌 미시적 시간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나는 담론성의 가설에서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실마리를 얻었다. 우리는 주로 유추 현상과 관련하여 어떻게 새로운 기호가 형성되는

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담론적 지향성은 비단 유추뿐만이 아니라, 설(1979)에 따르면, 은유, 간접 언어 행위, 아이러니 등 다양한 언어 행위와 관련된다. 나는 이러한 화행론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소쉬르의 문제들 속에서 지향적 기의와 관습적 기의를 구분할 것을 제안하였다.

소쉬르를 다시 읽으면서 나는, 소쉬르가 언어를 근본적으로 '시간적인 존재'로 파악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구조주의가 소홀히해온 시간의 문제는, 소쉬르가 결코 소홀히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그의 언어 사상의 중심에 바로 시간의 문제가 있음을 간파해야 한다.

참고 문헌

- 김성도(1999), 『로고스에서 뫼토스까지』, 한길사.
- 박상우(1999), 『내 마음의 옥탑방』, 제23회 이상문학상 수상 작품집, 문학사상사.
- 소쉬르, 최승언 역(1990), 『일반 언어학 강의』, 민음사.
- 에코, 이윤기 역(1985), 『장미의 이름』, 열린책들.
- (1990), 『푸코의 추』, 열린책들.
- 윌터 웅, 이기우 · 임명진 역(1995), 『구술 문화와 문자 문화』, 문예출판사.
- 최용호(2000), 『페르디낭 드 소쉬르: 언어와 시간』, 박이정.
- (2000), 「언어란 기계인가」, 『불어불문학지』 42.
- Benveniste, E. (1966), *Problème linguistique générale* 1, Paris: Gallimard.
- (1974), *Problème linguistique générale* 2, Paris: Gallimard.
- Capt-Artaud, M.-C. (1994), *Petit traité de rhétorique saussurienne*, Genève: Droz.
- Choi, Yong-Ho(1997), *Le temps chez Saussure*, Thèse de doctorat, Université

- Paris-X-Nanterre.
- Choi, Yong-Ho(1999), "Le retour à Saussure," *CFS* 52, Genève: Droz.
- (2000), "Saussure et Lacan: autour du problème du temps," *LINX*, Paris.
- Eco, U.(1979), *A Theory of semiotic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Engler, R.(1967~1968),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Edition critique, t. 1, Otto Harrassowitz Wiesbaden.
- (1974),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Edition critique, t. 2, Otto Harrassowitz Wiesbaden.
- Fehr, J.(1997), *Ferdinand de Saussure: Linguistik und Semiologie*, Frankfurt: Suhrkamp.
- Godel, R.(1957), *Les sources manuscrites du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de F. de Saussure*, Genève: Droz.
- Jäger, L.(1976), "F. de Saussures historisch-hermeneutische Idee der Sprache," *LuD* 27, pp. 210~44.
- (1983), "Der Saussuresche Begriff des Aposeme als Grundlagenbegriff einer hermeutischen Semiologie," in *Zeichen und Verstehen*, Akten des Aachener Saussure-Kolloquiums 1983, Rader Verlag 7~33.
- Marinetti, A., et Melli, M.(1986), *Ferdinand de Saussure: Le Leggenda germaniche*, Libreria Editrice Zielo-Este.
- Ong, W. J.(1982), *Orality and Literacy*, London and New York: Methuen.
- Peirce, C. S.(1978), *Ecrits sur le signe*, par Deledalle, G., Paris: Seuil.
- Percival, W. Keith(1981), "The saussurean paradigm: fact or fantasy?" *Semiotica* 36-1/2.
- Searle, J.(1979), *Expression and Mean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995), *La redécouverte de l'esprit*, Paris: Gallimard.

Signe et Temps : trois hypothèses sur 'l'instant' de Saussure

Yong-Ho CHOI

Sans prétendre au 'vrai' Saussure, j'ai essayé dans le présent article de dissiper, autant que possible, les soupçons continuels, assidus dans la littérature saussurienne, sur le fond desquels la pensée saussurienne ne cesse de revêtir une forme à la fois an-historique et anti-pragmatique. Mon but n'était pourtant pas d'ordre critique, mais d'ordre, disons, positif, il était de placer au centre de la pensée saussurienne un problème ignorée du structuralisme, celui du temps. Atteindre ce but, ce n'est pourtant pas si facile que ça. Il m'a fallu d'abord résoudre un problème épineux, voire énigmatique, celui lié au simple passage du *Cours* qui est le suivant :

"Une langue est radicalement impuissante à se défendre contre les facteurs qui déplacent *d'instant en instant* (je souligne) le rapport du signifié et du signifiant" (CLG/D, p. 110)

Ce qui est étonnant dans ce passage, ce n'est pas le simple fait que le

rapport du signifiant et du signifié peut changer, mais que ce changement a lieu *d'instant en instant*. Cette formule radicale provient, non pas de l'arbitraire des éditeurs qui s'observe souvent ici et là, mais de Saussure lui-même, puisque tous les trois auditeurs du troisième cours sur la linguistique générale de Saussure ne manquent pas de la reproduire presque de la même manière: Dégailler: *d'instant en instant*; Sechehaye: *tout le temps*; Constantin: *de moment en moment*. Cela ne signifie-t-il pas que la synchronie saussurienne se devise en micro-diachronies, c'est-à-dire en instants? Pour répondre cette question, j'ai mis en examen les trois hypothèses suivantes:

1) hypothèse de l'oralité: Elle s'appuie sur un exemple donné par Saussure lui-même pour illustrer la valeur du signe. Il s'agit d'un *Monsieur* trois fois prononcé par un conférencier. Chaque monsieur a sa valeur matérielle propre, et dans cette mesure on peut dire qu'il change *d'instant en instant*. Mais dans ce cas ce n'est pas le rapport du signifiant et du signifié mais le seul côté matériel du signifiant qui est en cause.

2) hypothèse de la socialité: Elle est de Johannes Fehr. C'est en fait la circulation du signe qui a pour conséquence la modification. C'est une bonne hypothèse, mais un peu trop générale pour donner des explications bien concrètes.

3) hypothèse de la discursivité: L'idée est que *l'instant* en question ne peut être autre que *l'instant du discours*. Et cet instant du discours ne peut être pensée sans le sujet du discours. Finalement c'est l'intentionnalité discursive du sujet parlant qui cause le changement du rapport du signifiant et du signifié. Les analyses de Saussure sur l'analogie a servi de

fil conducteur à mettre en lumière l'intentionnalité discursive du sujet parlant.

Quelques mots de conclusion : Le temps n'est pas absent de la pensée linguistique de Saussure. Mais il est partout, sous une forme, sinon originale du moins originaire.